

TOURISM SCOPE

E-book

Volume 29
2014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ISSN 1739-5089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 도시 네트워크인 TPO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적 관광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TPO는 현재 10개국 72개 도시 정부와 34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Scope〉 구독 신청은
TPO 공식 홈페이지(www.aptpo.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3 CULTURE & TRAVEL**
도시 여행자를 위한 부산시티투어버스
Busan City Tour Bus
- 07 SPECIAL**
규슈에서 고즈넉한 낭만을 느끼다
Romantic Kyushu
- 13 CITY THEME TOUR**
방콕 쇼핑의 모든 것!
Bangkok, Hip Shopping Places
- 17 CITY THEME TOUR**
응답하라, 그 시절 청춘이여
춘천 낭만 여행
- 23 TREND & ANALYSIS**
올봄, 걷기 좋은 트레킹 길 6
Trekking Beyond Nature
- 27 TPO INTERVIEW**
말레이시아 켈란탄 주
문화관광유산 장관
- 29 TPO NEWS**
- 31 FESTIVAL CALENDAR**

도시 여행자를 위한 부산시티투어버스

Busan City Tour Bus

다양한 테마를 가진 부산시티투어버스가 두박이 여행자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있다. 핫스팟들을 콕콕 짚어 정차하니 특별한 플랜 없이도 부산의 명소를 빠짐없이 둘러볼 수 있는 것. 부산시티투어버스로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자.



AM 10:00 시티투어버스의 시작 부산역

모든 부산시티투어버스는 부산역에서 출발한다. 해운대와 태종대 방향 중 돌아볼 곳을 정한 후, 운전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탑승! 2층 천장이 땀 뚫린 오픈 톱 버스는 2대뿐이라 사람이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시간이 매번 변경된다. 2층 버스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시원한 개방감으로 시티투어버스는 사계절 내내 만원이다. 출발과 동시에 모니터에서 주요 관광지 이미지가 나타나고, 스피커를 통해 음성이 흘러나온다. 버스를 타고 지나는 곳마다 지명에 얹힌 이야기, 볼거리를 짚어주니 가이드와 동행하는 기분이다.

탑승 장소 부산역 광장 아리랑호텔 앞 **전화** 1688-0098 **운영시간** 순환형 코스 9:30~17:10 30분 간격 1일 총 16회 운행 **테마형 코스** 1일 1~2회(예약 필수) 매주 월요일 휴무(단,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운행) **가격** 성인 1만 원, 소인 및 청소년 5000원

AM 10:40 동백꽃이 피어나는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섬과 육지 사이를 메워 만든 섬. 가수 조용필이 노래한 '꽃피는 동백섬'이 바로 이곳이다. 동백꽃이 피는 봄이 되면 섬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 누리마루 산책 코스에 오르면 둥근 지붕의 건축물을 만날 수 있다. 제3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열린 누리마루 APEC 하우스다. 산책 코스 중간쯤 작은 등대가 있는 바다 전망대가 바로 뷰 포인트다. 해운대해수욕장, 오륙도, 광안대교 등과 날씨가 좋으면 대마도까지 볼 수 있다. 섬 중앙에 있는 최치원 선생의 동상과 비도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동백로 116 **전화** 051-744-3140 **운영시간** 09:00~18:00, 첫째 주 월요일 또는 국가 행사 시 휴무 **가격** 무료



PM 12:40 부산의 얼굴 해운대해수욕장

부산 하면 바다, 바다 하면 해운대가 아니던가. 해마다 여름이면 수천 명이 찾는 피서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른 봄의 해운대는 여유롭기만 하다. 해변을 따라 한가로이 걷는 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는 소녀들, 과자 한 봉지로 갈매기와 친구가 된 가족까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운대를 만끽한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전화** 051-749-4000 **홈페이지** sunnfun.haeundae.go.kr



PM 05:00 부산 낭만 1번지 달맞이길

해운대까지 와서 달맞이길도 안 가 보면 두고두고 미련이 남을 일이다. 도로가 15번 이상 굽어져 '15 곡도'라고도 불리는 곳. 특히 월출이 아름다워 대한팔경 중 하나로 꼽힌다.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2.2km의 '문탠로드' 산책 코스는 초입에 세워놓은 '달맞이길' 표지판에서 출발! 해월정과 해마루공원이 전망 포인트다. 어둠이 찾아오면 길 위로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낭만적인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점등 시간** 5:00~일출, 일몰~23:00



EDITOR'S PICK

미스터리한 문화 공간 추리문학관

달맞이길 카페거리 뒤쪽으로 이색 문화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추리문학계의 거장인 김성중 작가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추리문학관이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국내 전문도서관 제1호로 추리소설을 포함한 다양한 문학도서 총 4만 7600권이 비치돼 있다. 추리문학관의 명당은 2층 전시·세미나 공간. 건물 중앙의 소리 모양 계단을 오르면 세계적인 문호들의 사진과 책을 전시한 공간을 만난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지길 111 **전화** 051-743-0480 **운영시간** 1층 09:00~19:00 2,3층 09:00~18:00,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휴무 **입장료** 5000원(음료 포함) **홈페이지** www.007spyhouse.com



부산시티투어버스 순환형 코스 ②

다이너믹한 부산을 즐긴다
태종대 코스

독특한 남해안의 절경과 거대한 선박이 드나드는 국제 항구, 미래 도시를 연상케 하는 마천루가 공존하는 도시. 역동적인 부산 풍경은 바다에서 시작해 바다로 끝난다. 국제 해양·관광 도시 부산을 느끼러 태종대 코스로 떠났다.



부산역 → 영도대교 → 75광장 → 태종대 →
국립해양박물관(국제크루즈터미널) → 남항대교 →
송도해수욕장 → BIFF광장 · 자갈치시장 → 부산역



AM 11:00

다누비열차 타고 비경 속으로
태종대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 태종무열왕이 이곳 경치에 반해 이름 붙인 태종대는 영도 최남단에 위치한 해안 절벽이다. 2시간 정도 걸으면 둘러볼 수 있지만, 오르막길이 계속돼 운동화가 필수다. 태종대의 명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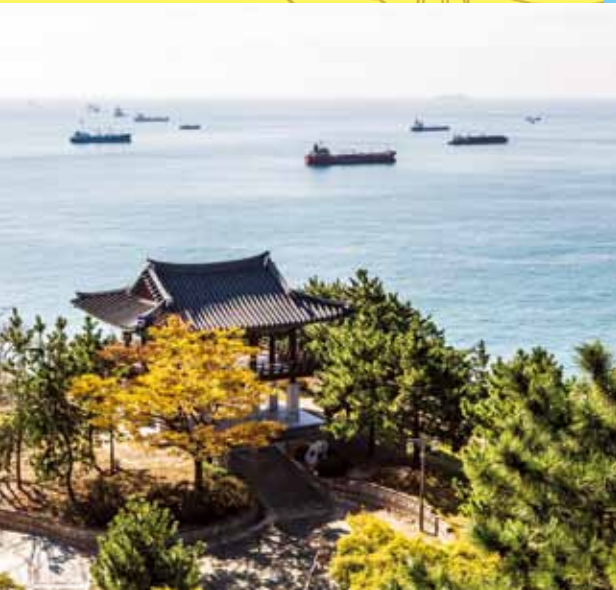
자리 잡은 다누비열차를 타고 단숨에 오르는 방법도 있다. 매표소 앞에서 20~4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평일에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예전 자살바위터에 세워진 전망대에 내려 다음 승강장인 영도등대와 신선바위까지 도보로 둘러보고 다시 열차를 타고 내려오는 코스를 추천한다.

주소 부산시 영도구 전망로 24 전화 051-405-2004 태종대 관광 유람선 전화 051-403-9098, 051-405-2900, 3434 운영시간 04:00~24:00(해면 출입 허용 시간 04:00~21:00) 다누비열차 매표시간 09:00~18:30 운행간격 30분, 오후 1시 이후로는 20분 홈페이지 www.taejongdae.or.kr

EDITOR'S PICK

환상적인 기암절벽 신선바위

100년 역사의 영도등대를 구경했다면 해안으로 방향을 틀어 신선바위까지 내려가보자. 평평하게 깎인 바위 면에 발을 딛고 주위를 병풍처럼 두른 기암절벽을 보고 있노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신선바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다. 이곳의 특별한 지질층에 대한 설명과 공룡 발자국에 관한 메모판이 곳곳에 있어 지질 탐방지로서의 구실도 톡톡히 하고 있다.



AM 10:00 절영해안로의 쉼표 75광장

바다에 수십 척의 배가 평화로이 떠 있는 절영해안. 영도 조소소 인근 바다에서 수리를 받고 있는 배들이다. 제대로 된 바다를 보려면 75광장 전망대에 올라야 한다. 티 없이 맑은 남해가 끝없이 펼쳐지고, 발아래로는 영도의 자랑 절영해안로와 출렁다리가 보인다. 3km에 달하는 절영해안로는 기암절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찾는 이가 많다. 주소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PM 03:00 우리나라 해양의 모든 것 국립해양박물관

우리나라 해양의 역사와 문화, 과학, 산업 등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았다. 해양을 깊이 이해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곡선을 살린 외관은 멀리서도 단번에 눈에 띄는 만큼 아름답고 웅장하다. 내부는 8개의 상설전시관과 1개의 기획전시관, 어린이박물관, 해양도서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외부는 하늘공원과 전망대, 야외전시장으로 꾸며 온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그만이다.

주소 부산시 영도구 해영로 301번길 45 전화 051-309-190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21:00, 일요일·공휴일 09:00~19:00, 매주 월요일 휴무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nmm.go.kr

PM 04:30 젊음이 불타는 거리 BIFF광장

뉴욕에 브로드웨이가 있다면 부산에는 시네마거리가 있다. 부산극장, 대영시네마, CGV 남포극장이 모여 있는 남포동 극장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심 무대. 이곳에 BIFF(부산국제영화제) 광장이 자리한다. 세계적인 톱 영화배우들의 핸드프린트가 바닥에 새겨져 있고, 복작이는 시장 풍경에서 부산 고유의 정서가 느껴진다. 일명 '승기호떡'이라 불리는 씨앗호떡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이곳. 매번 똑같은 메뉴가 식상하다면 튀김만두와 부산 어묵을 추천한다. 인근의 국제시장과 강동시장까지 둘러보면 더욱 알찬 여행이 완성된다. 특히 국제골목으로 통하는 강동시장은 패션과 식품 등 다양한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고, 맛집이 즐비해 부산 젊음의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명소다. 주소 부산시 중구 비포광장로 36 홈페이지 www.biff.kr





부산시티투어버스 다양한 테마형 코스

부산 여행의 완성 야경 코스

오후 7시에 출발하는 시티투어버스 야경 코스는 화려한 불빛으로 물든 부산 곳곳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야경 코스 포토존 금련산

시티투어버스 야경 코스는 해운대와 금련산에서 각각 한 번씩 정차한다. 이때 주어지는 10분간의 포토타임을 잘 활용할 것. 사진 포인트는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을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야 한다. 시야를 가리는 나뭇가지가 사라지며 광안대교부터 부산 시내까지 온전히 시야에 들어오는 지점이 나타난다. 이곳이 바로 부산의 밤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베스트 스팟!

주소 부산시 수영구 황령산로 156 전화 051-625-0709

부산시티투어버스 테마형 코스

테마	출발시각	소요시간	코스
역사문화탐방코스	9:20	약 4시간 10분	부산역 → 골드테마거리 → 서면 → 북천박물관 → 금강공원 → 범어사 → 변영로 → 부산역
해동용궁사코스	14:00	약 3시간 50분	부산역 → 광안리해수욕장 → 해운대해수욕장 → 달맞이교개 → 송정해수욕장 → 해동용궁사 → 광안대교 → 부산역
울속도 자연생태코스	9:40, 14:10	약 3시간 40분	부산역 → 영도대교 → 남항대교 → 송도해수욕장 → 암남공원 → 다대포 · 물운대 → 아미산전망대 → 울속도 에코센터 → BIFF광장 · 자갈치시장 → 부산역
야경코스	10~4월 19:00	약 2시간 30분	부산역 → 광안리해수욕장 → 해운대해수욕장 → 달맞이교개 → 광안대교 →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 부산역
	5~9월 19:30		

- 순환형 코스의 티켓은 1일 이용권과 같다. 당일 해운대와 태종대 방향으로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다. 단, 테마형 코스는 별도 구매해야 하며 환승이 안 된다.
- 순환형 코스 버스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40분이다.
- 테마형 코스는 예약이 필수이며, 부산역 승강장에서만 탑승이 가능하다.

두박이 여행자를 위한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백스코와 수영요트경기장이 있는 센텀시티에 위치한 아르피나는 부산관광공사에서 직접 운영해 더욱 믿음이 가는 유스호스텔. 교통의 중심지에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인근의 부산시립미술관과 수영강변 등도 함께 둘러보기 좋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도미토리 룸부터 거실과 주방을 갖춘 가족을 위한 콘도형 객실까지 다양한 형태의 객실을 갖춘 것이 가장 큰 장점. 콘도형 리조트처럼 단정하고 깔끔한 분위기로 나홀로 여행자가 찾아도 부담스럽지 않다. 스포츠센터와 사우나에서 노곤한 몸을 풀기 좋고 조식 서비스로 든든하게 아침을 챙겨 먹을 수 있다. 1층에 위치한 크루저 레스토랑에서 한식과 양식 요리가 뷔페 형식으로 제공된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35 전화 051-731-9800 가격 도미토리(1침대 기준) 성인 2만 9700원, 객실(1실 기준) 14만 3000원부터, 조식뷔페 1만 1000원, 사우나 성인 7000원 **부대시설 이용 시간** 조식뷔페 07:00~09:30, 사우나 06:00~24:00, 피트니스 06:00~23:00 **홈페이지** www.busan youth hostel.co.kr



EDITOR'S PICK

추천 야경 스팟

금련산 바로 옆에 붙은 황령산도 부산 야경 명소다. 금련산에서 차로 5분 정도 더 오르면 닿을 수 있다. 황령산 봉수대에서 해운대구와 남구, 동구, 북구, 동래구까지 내다보인다. 동백섬도 사진가들이 사랑하는 부산 야경 촬영지 중 하나. 마린시티와 누리마루를 어스름한 저녁 무렵에 눈에 담으면 더욱 아름답다. 최근에는 수영강변에 위치한 영화의전당이 새로운 야경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영화의전당



마린시티



누리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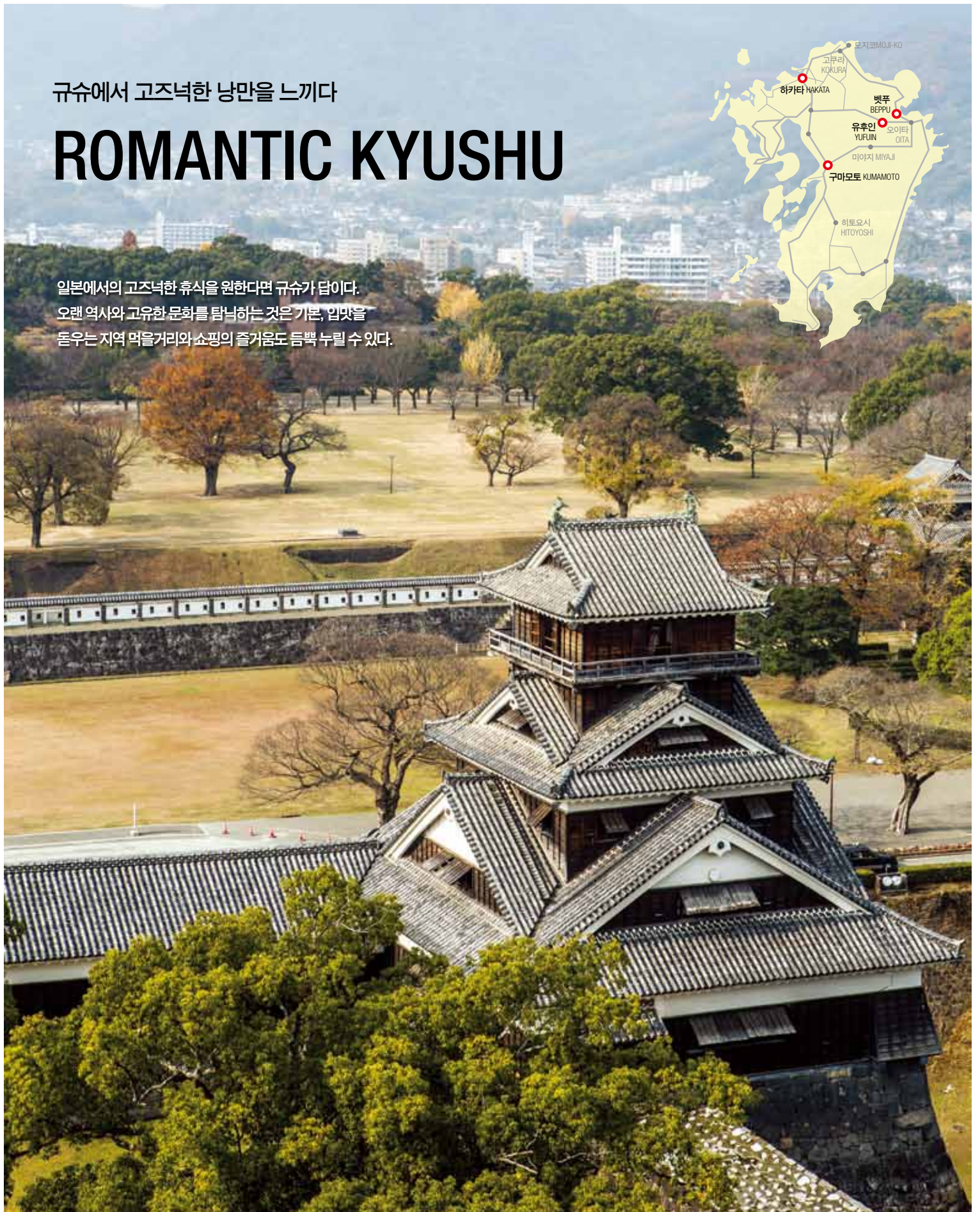


황령산 봉수대

규슈에서 고즈넉한 낭만을 느끼다

ROMANTIC KYUSHU

일본에서의 고즈넉한 휴식을 원한다면 규슈가 답이다.
오랜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탐닉하는 것은 기본, 입맛을
돋우는 지역 먹을거리와 쇼핑의 즐거움도 듬뿍 누릴 수 있다.





구마모토 역 熊本驛



아소보이 Aso Boy

세계 최대 규모의 아소(阿蘇) 칼데라를 통과하는 관광열차. 객실 내부를 장난감처럼 아기자기하게 디자인해 어린이는 물론 어른의 동심을 자극한다. 볼 풀장과 미니 도서관 등 가족여행객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구마모토는 일본 최고의 성 중 하나인 구마모토 성이 있는 역사의 땅. 세계 최대의 칼데라 지형 아소 산의 웅홀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도시다. 해발 700m 깊은 산속에는 오랜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온천 료칸이 웅기증기 모여 있다.



검은 성벽 구마모토 성 熊本城

오사가 성, 나고야 성과 함께 일본 3대 명성 중 하나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를 침략한 왜군의 선봉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조선의 과학적인 축성술을 전수받아 지어 방어력이 뛰어나다. 성 마당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 성 주변에도 은행나무가 많아 '긴산 성(은행 성, 銀杏城)'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봄이 되면 800그루의 벚나무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일본 벚꽃 100대 명소'로 유명하다. 1960년 복원된 높이 50m의 천수각 내부에는 성과 관련된 사료가 전시되어 있고, 6층 전망대에서선 구마모토 시내를 조망할 수 있다.

찾아가는 법 JR 구마모토 역에서 전차를 타고 10분 정도 달려 구마모토 조마에 역에서 하차 주소 熊本県熊本市中央区本丸1-1 전화 096-352-5900 운영시간 4~10월 08:30~17:30, 11~3월 08:30~16:30 입장료 성인 500엔 홈페이지 joajoa-kumamotocity.kr



아소 산분화구 나카다케 中岳

규슈 중앙에 위치한 아소(阿蘇) 산은 땅 아래 용암이 꿈틀거리는 거대한 활화산으로 구마모토의 상징이다. 아소 산의 분화구 '나카다케'는 둘레 4km, 높이 1323m로 세계 최대 규모의 칼데라. 날씨가 허락하면 분화구에 고인 에메랄드 빛 호수도 볼 수 있다. 분화구에 가까이 다가가면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천식, 기관지염, 심장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지대인 탓에 연평균 기온이 10℃ 안팎으로 쌀쌀하고, 날씨가 변덕스러워 분화구 방향으로 난 코스는 운이 좋을 때만 접근할 수 있다. 맞바람이 부는 날에는 진입할 수 없다.

찾아가는 법 JR 아소 역에서 규슈 산코 버스를 타고 40분 거리에 있는 아소산나시 역에서 가코니시 역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4분 전화 아소 산 로프웨이 0967-34-0411 운영시간 3월 20일~10월 08:30~18:00, 11월 08:30~17:00, 12월~3월 19일 9:00~17:00, 연중무휴 운행간격 평상시 15~20분 간격, 성수기 6~15분 간격 가격 성인 왕복 1000엔, 편도 600엔 홈페이지 www.kyusanko.co.jp/aso



미모 지수 레벨업 구로가와 온천 마을 黒川温泉

일본의 고유한 전통과 자연의 푸름이 오롯하게 하나 된 24개의 노천 온천이 밀집한 마을. 성분이 각각 다른 온천수가 10종류 이상 솟아나 온천 백화점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에 위치한 전통 료칸은 대부분 200~300년 된 장수 여관이다. 온천 수질 평가 전국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유명하고, 나트륨과 유황이 다량 함유된 것이 특징. 마을 초입에 자리한 '이코이 료칸(いこい旅館)'은 미인탕으로 유명하데, 이곳의 온천수가 피부미용에 좋다고 소문나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찾아가는 법 후쿠오카에서 유후인, 벳푸 또는 아소를 경유해 규슈 횡단 관광버스 또는 아소 유후고원 버스 이용 가격 유료 테가타(1일 세 군데 이용 온천 패스) 1500엔 홈페이지 구로가와 온천여관조합 www.kurokawaonsen.or.kr



하카타 역 博多驛



특급 아리아케 Ariake Express

하카타에서 나가스(長洲) 또는 구마모토까지 운행하는 특급 열차. 규슈 신칸센 개통 이전에는 하카타와 가고시마를 이어주는 열차였지만, 지금은 통근·통학시간에 주로 운행된다.

하카타 만의 국제무역항으로 번영했던 항구도시 하카타(博多驛)는 19세기 메이지 시대 때 후쿠오카 시와 통합된 이후 그 지명이 철도역과 항구 이름으로만 남았다. 현재 후쿠오카(福岡) 시는 규슈 제일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 도시.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에 과거의 문화유산이 적절히 혼재해 독특한 맛을 풍긴다.



학문의 신을 모신 다자이후텐만구 太宰府天満宮

일본의 유명한 학자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를 학문의 신으로 모신 신사. 해마다 입시철이면 도시 전역에서 입시 합격과 학업 성취를 빌고, 부적을 얻기 위해 수험생이 몰려든다. 본전 앞의 도비우메(飛梅)라 불리는 매화 나무는 미치자네 공이 좌천된 이후 그가 보고 싶어 교토(京都)로부터 날아왔다는 전설이 전한다. 그후 일본 전역에서 매화나무를 보내와 현재 경내에 약 6000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이 전설을 토대로 만든 떡 '우메가에모치(梅ヶ枝餅)'가 특산품이다.

찾아가는 법 JR 후쓰카이치 역에서 니시테쓰 전철로 갈아탄 후 다자이후 역에서 하차. 도보로 약 5분 **주소** 福岡県太宰府市幸府4丁目7-1 **전화** 092-922-8225 **운영시간** 06:30~19:00(12월 31일~1월 3일은 종일 개방), 연중무휴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dazaifutenmangu.or.jp



매화 나뭇가지 떡 가사노야 かさの家

다자이후텐만구 초입 상점가에서 꼭 맛봐야 할 간식. 떡에 매화나뭇가지를 얹어 무늬를 만들었다고 해 '매화 나뭇가지 떡(우메가에모치(梅ヶ枝餅))'라 불린다. 지금은 떡 위에 매화꽃 문양을 새겨준다. 찐쌀가루와 쌀가루를 반죽해 피를 만들고 안에 팥앙금을 넣어 틀에 구워 만든다. 따끈한 떡을 한 입 베어 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쫄한 게 앙금이 달지 않아 지루한 손이 간다. 이 떡을 먹으면 시험에 붙는다는 속설이 있다.

찾아가는 법 JR 후쓰카이치 역에서 택시로 약 15분 **주소** 太宰府市幸府2-7-24 **전화** 092-922-1010 **운영시간** 10:00~17:30, 연중무휴 **가격** 1개 105엔, 5개입 525엔, 10개입 1050엔 **홈페이지** www.kasanoya.com



인공 운하로 맛을 낸 캐널시티 하카타 Canal City Hakata

180m의 인공 운하가 관통하는 후쿠오카 최대의 복합쇼핑센터, 캐널시티. 2년 전 별관을 증축하며 더욱 핫한 쇼핑 명소로 떠올랐다. 패션 브랜드부터 화장품, 잡화, 기념품까지 250여 개의 다양한 숍이 입점해 있고, 영화관과 공연 극장도 갖췄다. 본동 중앙 거리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다이내믹한 분수쇼가 펼쳐지고, 한쪽 유리 천장의 크리스탈 캐니언(crystal canyon) 벽면에는 모니터 180개가 연출하는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아트>를 상설 전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법 하카타 역 또는 덴진 역에서 니시테쓰 버스를 타면 약 10분 소요 **주소** 福岡市博多区住吉1-2 **전화** 092-282-2525 **운영시간** 판매 숍 10:00~21:00, 레스토랑&카페 11:00~23:00 **홈페이지** www.canalcity.c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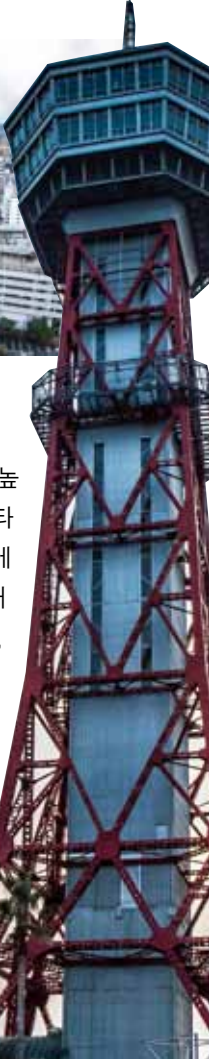


하카타 항의 상징

하카타 포트 타워 Hakata Port Tower

하카타(博多) 항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높이 103m의 붉은색 타워. 1964년에 세워졌는데, 하카타 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엔 고마운 길잡이이자 여행객들에게는 훌륭한 전망대가 되어준다. 높이 73.5m의 전망대는 360도 통유리로 제작되어 드넓은 하카타 만과 항구, 한적한 후쿠오카 시내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타워 1층의 박물관에서 하카타 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타워 맞은편에 위치한 베이사이드 플레이스 하카타(Bayside Place Hakata)에서는 거대한 아쿠아리움과 쇼핑, 레스토랑, 온천욕 등을 즐길 수 있다.

찾아가는 법 하카타 부두 여객터미널 맞은편에 위치. 하카타 역 센터 빌딩 앞 E 승차장에서 니시테쓰 버스를 타고 99번 하카타 부두행 종점 하차 **주소** 福岡市博多区築港本町14-1 **전화** 092-291-0573 **운영시간** 타워 10:00~22:00, 박물관 10:00~17:00, 연중무휴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port-of-hakata.city.fukuoka.lg.jp





일본이 인정한 최상급 말차(茶) 아메 차 八女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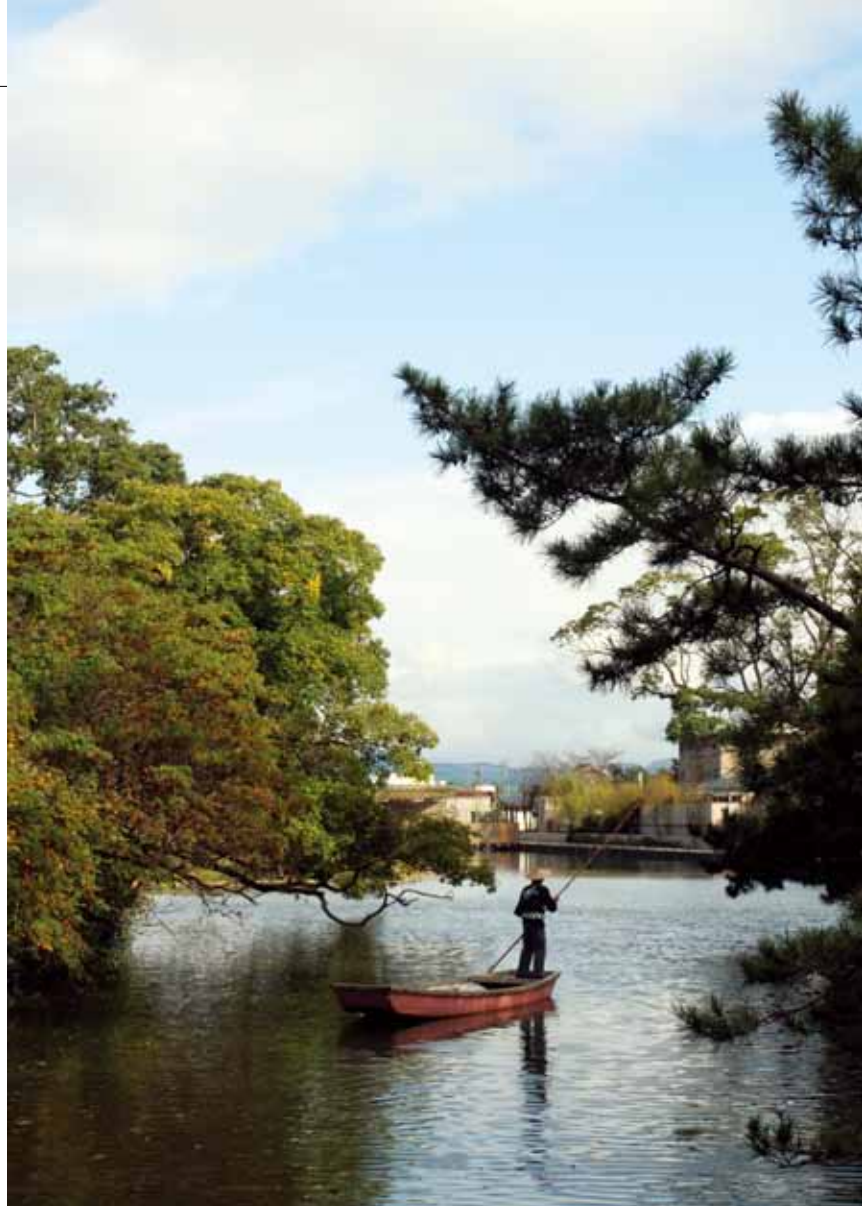
아메 차는 일본 전국 차 품평회에서 11년 연속 수상한 교쿠로(玉露) 차다. 교쿠로는 새싹이 돋기 시작할 무렵 햇빛을 차단하고 20일 정도 키운 일본 특유의 고급 차. 후쿠오카의 아메(八女)시가 이 차의 생산지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화학섬유 네트 대신 전통 벚짚을 사용하고 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전통이 으뜸일 때가 있다. 달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향. 아메 차가 후쿠오카를 향기롭게 만든다.



화려한 네온이 불야성을 이룬 나카스의 포장마차 거리 中洲屋台

자유롭게 놀 준비를 끝내고 나카스로 향한다. 강과 강 사이에 섬처럼 끼어 있는 나카스는 후쿠오카 제일의 변화가다. 클럽, 라이브하우스, 술집이 가득 늘어서 있어 불야성을 이룬다. 일단 현해탄의 신선한 어패류로 만든 초밥, 진한 국물 맛이 끝내주는 후쿠오카 명물 미즈타키, 그리고 매운 곱창전골로 배를 채운 후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린다. 밤이 무르익어갈 때 나카스 포차로 고고싱! 타인의 도시, 타인의 삶에 취해본다.

찾아가는 법 하카타 역에서 도보 5분 운영시간 18:00~02:00, 연중무휴



그물코처럼 얽힌 수로 따라 아나가와 뱃놀이 柳川観光開発

후쿠오카에서 전철로 45분 거리에 있는 마을 아나가와에는 400여 년 전에 영주가 성곽 방어를 위해 순찰했던 동굴이 남아 있다. 뱃사공이 노를 젓는 돈코부네(どんこ舟)를 타고 그 동굴을 돌아본다. 느리게 가는 배 위에서 평소에는 지나쳤을 마을의 작은 것들을 마음에 담는다. 겨울에는 고타쓰부네(일본식 난방 기구 고타쓰가 있는 배)에서 래프팅도 체험할 수 있다. 겨울에 즐기는 뱃놀이, 과연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본다.

주소 福岡県柳川市三橋町高畑329 전화 81-944-72-6177 운영시간 09:00~17:00, 30분 간격 홈페이지 www.yanagawakk.co.jp



분위기 있는 데이트 코스

이토시마 선셋 로드 糸島 Sunset Road

낭만을 얻기 위해 찾아간 곳은 후쿠오카 서쪽에 위치한 이토시마(糸島)시의 선셋 로드. 현해탄 해안에 33.3km 펼쳐져 있는 드라이브 명소 선셋 로드는 현지 커플들의 단골 데이트 장소다. 인근의 카페와 상점에서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다. 저녁 무렵 석양이 내 몸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노을빛에 물든 바다는 붉은 곤룡포 자락처럼 펼쳐진다. 이토시마 선셋 로드에서 내 인생이 낭만적인 30대 길로 들어선다.

주소 糸島郡志摩町桜井~小富士 전화 92-327-1111



고쿠라 역 小倉駅

규슈의 북쪽에 위치했다고 해 '규슈' 앞에 '기타(北)'가 붙는 도시, 기타큐슈(北九州市). '공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 멋지게 변신에 성공한 기타큐슈는 일본 녹차의 빛깔을 쏙 빼닮았다. 푸른 녹지와 역사를 바탕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관광도시다.



특급 아리아케 Ariake Express

하카타에서 나가스(長洲) 또는 구마모토까지 운행하는 특급열차. 규슈 신칸센 개통 이전에는 하카타와 가고시마를 이어주는 열차였지만, 지금은 통근·통학시간에 주로 운행된다.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고성 고쿠라 성 小倉城

기타큐슈의 중심부 고쿠라는 오랜 역사를 지닌 성과 시장 사이로 고급 호텔과 고층 빌딩이 들어선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공간이다. 후쿠오카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 번성한 기타큐슈에서도 가장 변화한 고쿠라 시내 한복판에 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쿠라 성이 있다. 1602년 호소카와 가문이 축성한 이래, 외국과의 무역업으로 부유했던 고쿠라 통치의 본거지였던 이곳은 화재로 소실됐지만 1959년 재건돼 방문자를 환영하고 있다. 꼭대기인 5층은 고쿠라 시내를 한눈에 조망하는 전망대 역할을 하며, 봄에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여름에는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마쓰리를 감상할 수 있다.

찾아가는 법 JR 고쿠라 역에서 도보 15분 전화 093-561-1210 운영시간 9:00~18:00(4~10월), 9:00~17:00(11~3월) 입장료 성인 350엔, 학생 200엔 홈페이지 www.kid.ne.jp/kokurajou/html/k01.htm



자연과 인간의 신비를 일깨우는 생명의 여행 박물관 いのちのたび博物館

일본 서부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박물관으로 자연사, 역사, 고고학 박물관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생명체의 진화를 자연과 인간 양면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 어린이의 학습 체험관으로도 제격이다. 어린이가 자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룡화석을 비롯한 각종 동식물의 표본을 전시한다. 한국어를 지원하는 통역기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박물관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세계 최초의 우주 테마파크 스페이스 월드가 있으니 어린이를 동행한 가족이라면 구경해보자.

찾아가는 법 JR 스페이스 월드 역에서 도보 2분 전화 093-681-1011 운영시간 9:00~17:00 입장료 성인 500엔, 학생 300엔, 어린이 200엔 홈페이지 www.kmnh.jp



역사 속으로의 산책 모지코 레트로 門司港レトロ

'모지코'라 불리는 모지 항은 메이지·다이쇼 시대 국제무역항으로 번영했던 곳이다. 1920년대에 활기차게 받아들였던 서양 문물로 인해 모지코 레트로에는 과거 역동했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다. 전쟁 후 많은 부분이 훼손됐지만 옛 모습을 되찾으려는 기타큐슈의 노력으로 역사를 품은 서양 건축물을 완벽하게 복원했다. 스위스 양식의 건축물인 구 모지미쓰이 클럽은 일본 유수 기업 미쓰이 물산(三井物産)의 영빈관이자 숙박시설이었던 곳으로, 아인슈타인 부부가 젊은 시절 일본 여행 중 머물렀던 방이 잘 보존되어 있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다.

찾아가는 법 JR 모지코 역 전화 093-332-0106(모지 항 레트로 클럽)



||||||| 규슈에서 찾은 온천 호텔 Best 4 |||||

온종일 물 좋은 온천에서 휴식을 취한다 해도 잠자리가 불편하면 다음 날이 찌뿌드드하기 마련. 온천수만큼 시설도 꼼꼼히 따져 고른 숙박시설 4곳을 소개한다.



숲 속의 온천

아마가세 선 빌리지 天ヶ瀬温泉 すばサンビレッジ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마가세 온천 중 원천을 3개나 보유한 료칸 호텔. 낙수온천과 노천온천, 여성 전용 노천온천, 동굴온천, 무시유(천연 온천 증기를 이용한 사우나), 대욕장 등 다양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이곳 온천수는 허터, 화상, 만성 피부병, 당뇨병,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오십견, 만성 소화기병 등에 효능이 있다. 자연에서 나는 제철 재료로 만든 가이세키 요리가 일품이고, 호텔 내 아기자기한 일본식 정원이 편안한 휴식을 안겨준다.

찾아가는 법 후쿠오카에서 차로 1시간, 유후인에서 차로 30분 주소 大分県日田市天瀬町赤岩108-1 전화 0973-57-3461 온천 이용시간 05:00~10:00, 11:00~24:00 가격 1박 2식 2명 평일 7500엔, 휴일 전날 9075엔, 휴일 및 연휴 1만 2225엔(3월에는 전세 8% 상승) 홈페이지 www.sun-village.co.jp



하카타 만 오션뷰

후쿠오카 힐튼 시 호크 호텔

Hilton Fukuoka Sea Hawk

후쿠오카에서 가장 큰 특급 호텔. 전 객실에서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호텔로 나무를 모티브로 한 친환경 디자인이 편안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침실뿐 아니라 다다미 객실 등 총 1400개가 넘는 객실이 마련되어 있다. 복합 리조트인 호크스 타운 안에 위치해 후쿠오카 돔이나 쇼펄몰과도 가깝다.

찾아가는 법 시호코호텔루 버스정류장 하차 후 도보 1분 이동 주소 福岡県福岡市中央区地行浜2-2-3 전화 092-844-8111 운영시간 온천 스파 02:00~24:00(7층) 객실 가격 1박 4만 5400엔 홈페이지 www.hawkstown.com/hotel



역사 깊은 온천 마을

우키하 료칸 호텔 瀬音・湯音の宿 浮羽

역사 깊은 아마가세 마을에 자리 잡은 전통식 료칸 호텔. 용출량이 많아 원천 온천수를 가둬두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가케나가시 방식의 온천에서 양질의 온천수를 경험할 수 있다. 나트륨 염화물 탄산수소 식염천으로 신경통과 근육통 같은 각종 통증을 완화하고 냉한 체질, 피로 회복, 상처, 화상은 물론, 음용 시 만성 소화기병, 만성 변비, 당뇨병, 통풍 등에 좋다. 여주인이 직접 만든 마스크트 '하나코지조' 지장보살은 이곳의 명물로 호텔 곳곳에 놓여 손님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법 JR 규다이혼센 아마가세 역에서 도보로 8분, 또는 택시로 2분 주소 大分県日田市天瀬町赤岩3-5 전화 0973-57-3171 가격 다다미 객실 1박 2식 2명 2만 5200엔 홈페이지 www.ukiha.co.jp/ukiha



작고 귀여운 나만의 공간

아소팜 빌리지 호텔 Aso Farm Village

아소 산 중턱 광대한 부지에 '사람 · 자연 · 건강'을 테마로 조성된 테마파크 '아소팜랜드'의 호텔. 동글동글한 동형 지붕의 객실 수십 동으로 이루어진 아소팜 빌리지는 작고 귀여운 스마트 마을을 닮았다. 빌리지 내부의 아소 화산온천은 남녀 각각 1000m² 규모로 규슈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아소의 대자연에 안겨 마음과 몸의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대정원노천탕과 전망온천탕, 동굴온천탕, 미네랄탕, 한방탕 등 다양한 온천이 있다. 우리나라의 찜질방과 같은 '돔 환원욕'도 마련되어 있다.

찾아가는 법 JR 야기미즈 역에서 버스를 타고 아소팜랜드 하차, 또는 역에서 택시로 7분 주소 13-10 Shinchi-cho, Nagasaki-shi, Nagasaki-ken 전화 0967-67-2600 운영시간 온천탕 7:00~9:00, 11:00~23:00 가격 1박 2식 1인당 8000엔, 화산온천 별도 이용료 성인 500엔 홈페이지 www.asofarmland.co.jp

방콕 쇼핑의 모든 것!

BANGKOK, Hip Shopping Places

쇼핑 하면 방콕, 방콕 하면 쇼핑을 빼놓을 수 없다. 방콕 쇼핑의 메카 시암 역 주변에는 시암 파라곤, 시암센터 등 초대형 쇼핑몰이 즐지어 있고 '방콕의 명동'이라 불리는 시암 스퀘어에는 태국 로컬 브랜드 의류들이 가득하다. 주머니 가벼운 소비자들을 위한 전통 시장은 꼭 둘러야 할 곳 중 하나. 방콕에서 가장 잘나가는 핫한 쇼핑 플레이스만 모았다.



Part 1

몰링(Malling) 투어

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과 함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몰링 투어. 전 세계 물고어족들의 파라다이스, 방콕의 곳곳을 소개한다.

세련된 분위기로 쇼퍼를 사로잡는다

킹 파워 콤플렉스 King Power Complex

쇼핑을 좋아하는, 특히 면세 쇼핑을 즐기는 여행자라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곳. 2006년 8월에 오픈한 방콕 시내 유일의 면세점으로 콤플렉스 건물 1, 2층에 걸쳐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우선 1층의 등록 데스크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등록하면 쇼핑 카드를 받을 수 있다. 환전이나 휴대품 보관 서비스도 가능하다. 1층에서는 태국 전통 공예품과 실크, 아로마 테라피, 주류, 보석, 식품 등을, 2층에서는 각종 명품 브랜드와 코스메틱, 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찾아가는 법 스카이 트레인 전승기념탑(Victory Monument)역 2번 출구로 나와서 킹 파워 전용 특목이를 타면 된다. 전화 0-2677-8899 운영시간 10:00~21:00 홈페이지 www.kingpower.com



궁극의 쇼핑 메카

시암 파라곤 Siam Paragon

방콕 최대의 쇼핑센터로 꼽히는 시암 파라곤에는 모든 것이 있다. 지하의 슈퍼마켓부터 에르메스와 마크 제이콥스가 자리 잡은 1층, 태국의 이국적인 감각을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표현한 리빙&아트 아이템이 화려하게 펼쳐진 4층까지. 단, 취향과 가격대가 결코 만만하지 않으니 시암 파라곤에서는 카드 한도를 계산해가면서 지갑을 열어야 한다. 우아한 카페와 푸드 코트, 레스토랑, 시암 오션 월드, 아이맥스 영화관, 100여 개 전자 업체가 입주해 있는 파워 몰 울트라까지 갖추고 있다.

찾아가는 법 스카이트레인 시암 역 3번 출구 주소 991 Siam Paragon Shopping Center, Rama 1 Rd., Pathumwan, Bangkok 전화 02-690-1000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siamparagon.co.th



명품 쇼핑의 메카

게이손 Gaysorn

방콕에서 가장 비싼 백화점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갤러리아나 롯데 에비뉴엘 정도에 해당한다. 여타 방콕 백화점 특유의 복잡작한 인테리어와는 달리 내부가 세련된 대리석으로 장식돼 있고

시종일관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다. 1층에는 루이비통, 페라가모, 프라다 등 명품 브랜드를, 2층부터는 태국 유명 디자이너들이 운영하는 부티크와 그레이하운드(Greyhound), 스렛시스(Sretsisi), 클로셋 레드 카펫(Kloset Red Carpet), 세나다 티오리(Senada Theory) 등 실력 있는 태국 디자이너들의 신형 로컬 브랜드 의류와 소품을 만날 수 있다.

주소 999 Ploenchit Rd. Bangkok 전화 0-2656-1177 운영시간 10:00~20:00(백화점 내 레스토랑, 카페는 21:00까지 운영) 홈페이지 www.gaysorn.com



영&캐주얼 시암 센터 Siam Center

시암 센터는 캐주얼하고 대중적인 디자인과 젊은 감성의 아이템을 중심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트렌트룩과 기념품 가게들이 밀집해 있어 시암 스캐어와 함께 젊은 층의 패션을 선도한다. 1973년 미국 건축가가 설계한 4층짜리 건물로 시암에서 가장 먼저 생긴 쇼핑몰이기도 하다. 4층에는 타이 디자이너들의 브랜드 편집 층인 mob.f와 인기 DJ 조(Joe)가 진행하는 EFM94의 라디오 부스가 있다. 시암 센터와 시암 파라곤을 잇는 광장에서는 때에 따라 전시회나 공연 등이 열리며 분수대와 스카이트레인(스카이 트레인)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찍기에도 좋다.

주소 989 Rama 1 Road, Pathumwan, Bangkok 전화 02-2658-1000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siamcenter.co.th



Part 2

젊은 쇼퍼들을 위한 스폿

방콕의 젊은 쇼퍼들이 잘 가는 쇼핑
플레이스를 찾아가보자.
방콕의 트렌드가 한눈에 보일 테니.



젊은 그대 시암 스퀘어 Siam Square

이대나 홍대 것처럼 골목골목 작은 편집 매
장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으로, 태국의 10
대와 20대가 원하는 트렌드는 모두 이곳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국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는 출라롱껀(Chulalongkorn) 대
학교와 가까워 낮에는 교복 입은 대학생과
양 갈래 머리를 땀아 내린 중·고등학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의류, 액세서리, 가방, 신
발, 서점, 카페, CD가게, 영화관 등 없는 것
없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스퀘어. 답답하고
확립화된 쇼핑물에 질린 여행자에게 강력
추천한다.

찾아가는 법 스카이 트레인 시암 역에서 하차, 파야타이 로드(The Phayathai) 교차로 인근

원스톱 쇼핑 파라다이스
센트럴 월드 Center World

타이 브랜드&인터내셔널 센타
라 그랜드 호텔, 컨벤션 센터,
고급 오피스텔과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쇼핑 공간. 쟈 백화점,
이세탄 백화점, 자라(Zara), 먼
세점과 막스앤스펜서(Max
&Spencer), 톱 숍(Top Shop)
등 약 500개의 국제적인 브랜
드 숍을 비롯해 100여 개의 레
스토랑 등이 빼곡히 들어차 있
다. 태국 로컬 브랜드 숍 역시
스타일과 가격대별로 다양해 선
물을 구입하기에 좋다.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오픈 카페와 캐
주얼한 다이닝 공간, 대형 서점
과 음반 전문점도 입점해 있다.
2010년 시위로 전소된 쟈 백화
점은 현재 공사 중이다.

주소 Ratchaprasong Intersection,
Patumwan, Bangkok 전화 02-640-7000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
centralworld.co.th

10대들의 놀이터

마분크롱 Mah Boon Krong Center

우리나라의 남대문, 동대문 쇼핑
몰이나 명동의 쇼핑 거리를 생각
하면 간단하다. 방콕의 많은 쇼핑
몰 중 10대들이 유난히 많이 찾는
곳으로 다른 몰들에 비해 현지인



의 비율이 높다. 그렇다보니 화장실도 2바트를 내고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도큐 백화점, 톱스 마켓 등
도 입점해 있다. 여행자를 위한 디스카운트 카드(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배부)와 웰컴 드링크(5층 푸드 코트에서
1잔 구매 시 1잔 무료)는 챙겨둘 것.

주소 444 Phayathai Rd., Patumwan, Bangkok 전화 0-2620-9000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mbk-center.co.th

SHOPPING INFORMATION

어메이징 타일랜드 그랜드 세일 Amazing Thailand Grand Sale

태국에서 매년 3개월간 펼쳐지는 쇼핑 축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000여 개의 상점에서 5~80%의 할인율을 만끽할 수 있으니 지갑을
열수록 이득 보는 느낌이 들어 멈출 수가 없다! 유명 백화점, 쇼핑몰, 키파워 면세점, 항공사, 호텔, 스파, 골프장, 온라인 여행사, 병원, 보석가
게와 방콕 쇼핑 거리의 상점들, 치앙마이, 푸켓, 파타야, 후아힌, 핫타이의 등의 유명 관광지 등지에서 함께 진행된다.

세금 돌려받으세요! 세금 환급 Tax Refund

태국의 상품 가격에는 7%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행자가 'VAT Refund For Tourists' 사인이 있는 숍에서 같은 날 2000바
트 이상 구매했을 경우 'VAT 환급 신청서'를 달라고 할 것. 총 5000바트 이상부터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기 전, 환급
신청서와 구매한 제품을 세관에 보여주고 서류에 사인을 받는다. 출국 심사를 받은 뒤 사인된 서류와 세금계산서 원본을 세금 환급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60일 이내에 구매한 경우에 한해서만 환급 받을 수 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 부가가치세 환급 사무실 662-134-0674



커뮤니티형 쇼핑몰 파크레인 Park Lane

K빌리지와 마찬가지로 유럽풍의 오픈 에어 쇼핑몰인 파크레인 역시 주 타깃층은 인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2010년 오픈했으며 심플하고 세련된 약 40

여 개의 브랜드 숍이 영업 중이다. 파크레인에서 주목해야 할 숍은 핏 숍(Twinkle)과 어린이 놀이 시설인 플레이타임(Play Time). 플레이타임의 경우 단순 놀이방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요가, 무에타이 등의 스포츠 수업과 직업 체험 공간, 미술 공작 수업 등 다양한 놀거리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부모들이 특히 좋아할 곳!

주소 Gelson Development Co.,Ltd. 18 Soi Sukhumvit 61, Wattana., Bangkok 전화 02-382-1580-85 운영시간 10:00~22:00, 플레이타임 08:30~21:00 입장료 플레이 타임 신장 105cm 미만 180바트, 신장 105cm 이상 300바트, 성인(부모 혹은 도우미) 90바트 홈페이지 www.parklanebangkok.com

////////// Bangkok에서 특별한 쇼핑을 원한다면? //////////



차투착 주말 시장



팟뽕 야시장

세상의 모든 잡동사니!

차투착 주말 시장 Chatuchak Weekend Market

이곳에 없는 물건은 방콕에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의류, 기념품, 골동품, 가구, 인테리어 용품, 식기, 애완동물, 식품, 길거리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7000개 이상 모여 있는 태국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이다. 특별히 쇼핑할 마음 없이 구경만 해도 반나절은 훌쩍 지날 만큼 거대한데 반나절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진귀하고 재미있는 물건이 가득하다. 기념품이나 의류는 방콕 시내 상점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추가로 할인도 해준다. 일요일 폐점 1~2시간 전에는 할인 폭이 더 크다는 사실!

찾아가는 법 스카이 트레인 모 치트(Mo Chit)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운영시간 07:00~17:00(토·일요일만 운영)

밤이 되면 피어난다

팟뽕 야시장 Patpong Night Market

실록을 가득 메운 오피스 빌딩 속 비즈니스 맨들이 모두 퇴근할 무렵 팟뽕을 중심으로 실록 일대는 야시장으로 바뀐다. 최근 수인 룸 야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현지인과 여행자가 매일 밤 몰려들고 있다.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노점상들이 옷과 가방, 기념품을 판매하는데 이미테이션 제품이 가득해 동대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형성된 야시장인 만큼 바가지가 대단하다. 팟뽕 유흥 거리와 연결돼 있어 가족과 함께 걷는다면 문득문득 헛벗은 여인들을 만나 뭉치 놀랄 수 있다.

찾아가는 법 스카이트레인 실라뽕역 1번 출구로 나와 실록 방향으로 도보 3분 거리의 팟뽕에 있다. 주소 Thanon Silom, Soi Patpong 운영시간 18:00~01:00

활기찬 태국의 아침을 연다

담논 사두악 수상시장 Domnoen Saduak Floating Markets

방콕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담논 사두악 수상시장. 방콕을 비롯해 태국의 생활상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수상시장이다. 물건을 사고파는 모습은 어느 시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강 위에 떠 있는 롱 테일 보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상인들은 배 위 혹은 물에서 물건을 팔고, 사람들 역시 배에서 물건을 산다. 오징어와 해산물을 구이를 비롯해 과일, 쌀국수, 각종 튀김, 고기 등 없는 게 없다. 선착장 옆길을 따라 마사지 숍, 기념품 가게, 음식점 등이 줄지어 서 있다.

찾아가는 법 방콕남부버스터미널에서 996번, 78번 버스 탑승 운영시간 07:00~12:00



사두악 수상시장



응답하라,
그 시절 청춘이여

춘천 낭만 여행



경춘선 완행열차를 타고
느릿느릿 춘천을 가던 때가 있었다.
젊은 날의 추억이 깃든 춘천을
10년 만에 다시 찾았다. 느림보
걸음으로 수많은 연인들을 실어
나르던 그때 그 시절의 경춘선은
온데간데없고, 바람을 가르며
쾌속 질주하는 'ITX-청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기억 속
옛사랑의 그리운 풍경들을 만나러
지금 춘천으로 떠난다.





물길 따라 걷는 호반의 도시



춘천의 그리스 산토리니

춘천 시내가 한눈에 잡히는 구봉산 자락에 자리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지중해의 푸른빛과 흰 건물을 모티브로 한 이곳은 잔디밭 위에 솟아 있는 이국적인 종탑이 시선을 잡아끈다. 지중해풍 낭만이 살아 숨 쉬는 산토리니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나 프러포즈 명소로 인기가 높다. 이름만 그럴싸한 게 아니다. '산토리니'라는 상호에 걸맞게 지중해의 맛과 멋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이탈리아 음식을 선보인다. 마르게리타, 디아볼라, 카프리초사, 콰트로 포르마지오 등 6종류의 이탈리아 정통 피자를 맛볼 수 있는데 도우가 얇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안심스테이크. 부드러운 육질이 입맛을 자극하고, 소양호의 아름다운 석양이 두 눈을 사로잡는다. 구봉산의 정기가 머무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이들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도 함께 운영하니 밤늦도록 춘천의 야경을 감상하기에 그만이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144-16 전화 033-242-9030
운영시간 카페 10:00~24:00, 레스토랑 11:40~23:00 가격 아메리카노 5000원, 마르게리타 피자 1만 2000원, 안심스테이크 3만 8000원, 스테이크 코스 4만 5000원 홈페이지 www.i-santorini.co.kr



한국 최초의 원두커피 전문점 이디오피아집(벧)

공지천변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로스팅 카페. 1968년 조용이, 김용희 부부가 설립한 이곳은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현재 막내딸 부부 차중대, 조수경 씨가 2대째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파병된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참전기념비를 세운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2011년에는 카페 앞 도로가 '이디오피아길'로 정식 지정됐고 매년 10월 '춘천이디오피아길 세계커피축제'가 개최돼 전국 커피 마니아들이 공지천변으로 모여든다. 이디오피아집(벧)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에티오피아의 황제 하일레슬라세 1세가 직접 카페 이름을 지어준 것은 물론 본인이 즐겨 마시는 황실 커피 생두를 한국 외교부를 통해 이곳에 보내와 화제가 됐다. 이 집의 인기 메뉴는 아메리카노. 황금색의 크레마가 풍성하게 덮여 있는데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 부드럽고 진한 맛을 유지해준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이디오피아길 7 전화 033-252-6972 가격 아메리카노 5500원, 에스프레소 6050원, 카페라테 6600원, 카페모카 7700원

춘천은 역시 '물의 도시'다.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호수를 둘러싸고, 물길을 따라 사뻐사뻐 걷을 수 있는 산책로가 여행자의 마음을 흔든다. 강바람에 실려 온 진한 커피 향이 운치를 더한다.

호반의 위엄 공지천 유원지

춘천의 낭만을 피부로 느끼고 싶다면 공지천 유원지가 제격이다. 춘천 의암호 상류인 공지천에 오리 배 두어 척이 한가롭게 떠다니고 있다.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와 조각공원, 분수대, 보트장, 야외 공연장은 물론 어린이회관, 에티오피아참전기념비 등 다양한 시설이 자리해 있다. 연중 보트놀이와 오리 배를 즐길 수 있어 가족은 물론 연인들이 즐겨 찾는다. 매년 8월이면 MBC강변가요제가 열리고, 가을이 시작되는 10월이면 공지천변을 따라 단풍이 곱게 물들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이디오피아길 25 전화 033-250-4312

＊ 사람 냄새 나는 시장 속으로 ＊

여행할 때마다 시장을 기웃거리곤 한다. 춘천 여행의 첫걸음도 역시 시장이다. 춘천 낭만시장에 가면 빛깔 좋은 과일이 있고, 비릿한 생선이 있고, 달달한 미제 과자가 있고, 할머니가 신을 법한 고무신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푸근한 정도 한 줌 담아왔다.



‘情’까지 파는 시골벽적인 장터 낭만시장

오래된 재래시장이 문화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났다. 이는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의 일환으로, 침체된 시장에 공공미술과 문화가 침투해 활기를

불어넣는 것. 낭만시장의 본래 이름은 중앙시장이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사이에선 아직도 ‘양키시장’으로 통하는데 역사가 꽤 깊다. 군데군데 미제 사탕과 과자, 통조림 등 수입품을 파는 가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시장 안에는 개성 가득한 설치물과 벽화가 숨은 듯 자리해 있어 구석구석 누비는 재미가 있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11-134 전화 033-254-5338



시장 안 별난 여행자카페 궁금한 이층집

여행 관련 서적은 물론 흥미로운 여행 정보가 가득한 여행자 카페로, 따스한 커피를 마시며 잠시 다리 쉼을 하기 딱 좋다. 카페지기는 손님들에게 문학, 공연 등을 테마로 한 춘천 여행 정보를 제공해 가이드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곳에선 공정무역 커피만을 고집하는데 100% 수작업으로 수확한 동티모르 커피를 취급한다. 카페 한편에선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별난 물건을 위탁 판매하는데, 친환경 옥수수 섬유로 만든 양말 ‘콘삭스(Cornsox)’가 눈에 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아프리카 부르크나파소에 기부한다니 절로 좋은 일에 동참하는 셈이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11-134 낭만시장 내 2층 전화 070-4109-5401 운영시간 11:00~21:00, 월요일 휴무 가격 아메리카노 2500원, 카페라떼 3000원, 핫초코 3000원



줄 서서 먹는 닭강정 닭터강정

속초, 강릉 등 전국의 이름난 닭강정집을 돌며 신물 나게 먹어보고, 고유의 레시피를 개발할 때까지 닭을 튀기고 소스를 만들었다. 그렇게 갖은 노력 끝에 탄생한 것이 '닭터강정'. 화학조미료 대신 참쌀 조청을 넣어 자극적인 단맛을 줄였고, 신선한 국내산 닭과 직접 만든 특제 소스로 담백하게 맛을 냈다. 그때 그때 주문 들어오는 대로 만드는 것이 이 집의 원칙.

주소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11-128 낭만시장 내 전화 033-252-2991 운영시간 09:00~21:00 가격 순살 닭강정 1만 7000원, 뼈 있는 닭강정 1만 6000원



'후루룩' 추억을 먹다 낭만국시

손맛 가득한 할머니표 국수가 그림이라면 시장 안 국숫집이 제격이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운영하는 이 작은 국숫집은 점심 때면 밀려드는 손님들로 늘 만원 사례다.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칼국수, 김밥 4가지로 심플하지만 맛은 결코 가볍지 않다. 시원한 멸치국물이 깊은 맛을 더하고 부드러운 면발이 목구멍을 타고 술술 넘어간다.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인 배추 겉절이는 뜨끈한 국수와 찰떡궁합. 맛도 맛있지만 가격까지 착하다.

전화 033-252-6255 가격 잔치국수 · 비빔국수 · 칼국수 3000원, 김밥 1500원



구워 먹는 닭갈비 보셨나요?

원조 닭불고기집

1961년 문을 열어 50년 넘게 대를 이어 한결같은 맛을 내고 있는 이곳은 평일에도 줄 서서 먹어야 할 만큼 인기다. 우리가 알던 춘천 닭갈비와는 비주얼이 사뭇 다르다. 빨강계 양념한 닭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는 식인데, 사실 춘천 닭갈비의 원조는 이 '닭불고기'란다. 양배추와 채소, 떡 등의 부재료 없이 닭고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닭불고기는 부드러운 육질과 은은한 숯불 향이 단번에 입맛을 사로잡는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 70번지 전화 033-257-5326 운영시간 10:30~22:00 가격 뼈 없는 닭갈비 1만 원, 뼈 있는 닭갈비 9000원, 된장찌개 2000원



김유정 문학의 향기를 따라

〈동백꽃〉을 읽어보지 않은 자 있을까. 첫사랑 ‘점순이’와의 이야기가 켜켜이 스며든 ‘김유정문학촌’에 들러 문학의 향기에 취하고, 김유정 소설 속 명장면이 되살아나는 ‘실례 이야기길’을 걸으며 자연과 마주했다. 춘천의 맛이 땀 메밀막국수까지 먹고 나니 행복감이 절로 찾아든다.



김유정의 문학촌 담은 한옥 역사 김유정역

이름에서부터 문학의 향기가 듬뿍 묻어난다. 한국 철도 역사상 사람 이름이 붙은 역은 이곳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신남역’이라는 작은 간이역이었는데, 2004년 12월 춘천을 대표하는 문인 김유정의 이름을 따 ‘김유정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2010년 새로운 역사로 이전해 기와를 얹어 고풍스러운 역사로 재탄생했다. 역사 바로 옆에 자리한 레일바이크정거장 ‘북스테이션(Book Station)’도 큰 볼거리. 강원도와 인연이 깊은 소설가 29명의 주요 작품 98권이 위풍당당하게 세워져 있다.

문학 여행에 어울리는 봄내길 1코스 실례 이야기길

실례마을과 금병산 자락을 잇는 ‘실례 이야기길’은 춘천의 걷기길인 봄내길 1코스에 해당하는 문학길이다. 김유정 문학촌 앞에서 시작되는 이 길은 산신각과 저수지를 지나 금병의숙, 마을 안길까지 이어지는 총 5.2km의 거리로 2시간이면 충분히 완주할 수 있다. 김유정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내용을 본떠 16개의 구간을 만든 점이 이색적이다.

전화 033-250-3089

강원도 메밀 맛 좀 보시려요 시골장터 막국수

김유정역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허름한 집 한 채. 간판이 없었다면 일반 시골집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내부는 더 수수하다. 신발을 벗고 창호지 바른 문을 열자 테이블 몇 개 놓인 작은 방이 나온다. 시골 할머니의 뜨끈한 방 안에 앉아 막국수를 먹는 기분이다. 주문을 하자 숙주, 오이, 김가루, 달걀 등 갖가지 고명을 듬뿍 얹은 막국수를 부리나케 내놓는다. 향긋한 메밀 향과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침샘을 자극한다. 육수는 취향에 따라 적당히 부어 먹도록 되어 있다.

주소 춘천시 신동면 중리 861-14 전화 033-262-8714 운영시간 11:40~19:00 첫째, 셋째 일요일 휴무 가격 순메밀막국수 6000원, 메밀 전병 5000원, 메밀만둣국 6000원



김유정 소설 속 배경을 찾아서 김유정문학촌

김유정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김유정문학촌. 김유정 생가와 기념전시관을 묶어 2002년 8월 개관했다. ‘ㅁ’자 구조의 김유정 생가는 6·25전쟁 중에 파괴되었다가 김유정의 조카와 마을 주민의 생생한 증언과 고증을 거쳐 복원됐다. 생가 옆으로 기념전시관이 나란히 자리해 있는데, 29살의 짧은 생을 살다간 김유정의 발자취와 주옥같은 단편소설 등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다. 춘천시청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문화해설사의 친절함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중리 868-1 전화 033-261-4650 운영시간 겨울 09:30~17:00, 여름 09:00~18:00, 월요일 휴관 홈페이지 www.kimyoungeong.org



너와 함께 걷고 싶은 그 길 메타세콰이아길

하늘로 쪽쪽 뻗은 울창한 가로수길에 서니 자연에 한 걸음 다가선 기분이다. 1977년 서울농대에서 가져온 묘목을 심은 것이 메타세콰이아길의 시초. 드라마 <겨울연가>에 등장하면서 외국인들까지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봄과 여름에는 푸른빛이, 가을엔 알록달록 단풍이 물들고, 겨울엔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사계절 전혀 다른 빛깔을 뽐낸다.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신나는 도서관

남이섬이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는 '세계책나라축제' 때문이다. 매년 4월 남이섬에서는 수만 권에 이르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책을 만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책 축제를 만든 이는 다름 아닌 동화작가 강우현 남이섬 대표.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밥플렉스 건물 1, 2층에 자리한 '신나는 도서관'. 지난 4월, 제6회 남이섬세계책나라축제를 맞아 개관한 곳으로, 1층에는 '그림책 도서관', 2층엔 '국제그림책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다. 국내에서 해외 그림동화책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서관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남이섬의 유일한 호텔 정관루

남이섬 남단, 가장 끝자락에 자리한 호텔로 새소리, 물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하다. 1979년 개관, 2006년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가들이 만들고 가꾼 갤러리 호텔로 재탄생했다. 본관은 46개의 객실로 꾸며져 있고, 별관은 13개 동의 별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티크형 아트 호텔을 표방한 정관루는 객실마다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특색 있게 꾸며졌다. 전 객실이 모두 다른 디자인, 독특한 테마로 꾸며져 있어 예약을 통해 방을 선택할 수 있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길 1 전화 031-580-8000 가격 스위트룸(4인) 12만 원(주말 15만 원), 테마객실(2인) 7만 7000원(주말 9만 9000원), 가족룸(3인) 9만 9000원(주말 12만 원)

새처럼 날아 남이섬에 착지하다 집와이어

배 타고 들어가는 남이섬이 시시하다면 하늘 길로 오가는 집와이어(Zip Wire)를 추천한다. 탑승 장소는 가평군 달전리 선착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에 오

르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높이 80m, 아파트 25층과 맞먹는다. 남이섬까지의 거리는 940m, 출발 신호와 동시에 안전 문이 열리는데 1분 30초 뒤면 두 다리가 남이섬에 닿는다. 다만 안전을 위해 몸무게 제한을 두는데, 45kg 이상(기상 여건에 따라 변동)이어야만 탑승 가능하다. 속도는 평균 40km/h지만, 탑승자의 몸무게에 따라 속도가 조금씩 달라진다. 입도할 때는 집 와이어를 이용하고 출도 시에는 선박을 이용하면 된다. 음주 시 탑승이 제한된다.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44-1 전화 031-582-8091 가격 1인 3만 8000원(남이섬 입장료와 선박이용료 포함) 홈페이지 www.zipwire.co.kr



올봄, 걷기 좋은 트레킹 길 6

Trekking Beyond Nature

세상에 길은 많다고 하지만
그 길이 다 갈을 수는 없다.
트레킹 여행의 매력은 수없이
또 다른 길에서 마주치는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다. 세상이 다시
싱그러운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봄. 움츠린 몸을
펴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 디려보자.



동남아 최고봉을 정복하다 코타키나발루, 키나발루 산

카다잔족 언어로 '아키나발루', 즉 '죽은 자를 숭배하는 장소'라고 불리는 키나발루는 그 이름과 다르게 세계 트레커들 사이에서 가장 정복하기 쉬운 산으로 유명하다.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만 따로 장비가 필요 없고 곳곳에 놓인 가이드 로프만을 이용해 최고봉인 로우봉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 해발 2km가 넘는 고산 정상에서 맛보는 신선한 공기와 눈부시게 푸른 키나발루의 대자연은 트레커라면 누구나 욕심내는 말레이시아의 보물이다. 비록 오르기 쉬운 산이라고 하나 고도가 높아 고산병에 걸릴 수 있어 무리한 등반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일반 트레커들이 로우봉까지 왕복 등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 해발 2.1km 지점인 팀포혼 게이트에서 정상까지 불과 2km 남짓해 베테랑 트레커라면 당일 등반도 도전해볼 만하다. 이틀 코스로 트레일을 밟는다면 3.3km 지점에 위치한 라반라타 산장에 묵을 것을 추천한다. 산장이지만 리조트 휴게소 못지않게 시설이 훌륭해 지친 여행자에게 아늑한 휴식을 선사한다. 숙박 예약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키나발루를 찾는 트레커들 대부분이 라반라타에 숙박하기 때문에 3~4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원하는 날짜에 숙박할 수 있다.

녹색 알프스에서 체험하는 고산족 문화 하노이, 사파

동남아에서 보는 녹색 알프스는 어떤 느낌일까? 해발 1500m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베트남의 소수민족 마을인 사파에 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초록색 캔버스에 8개 민족의 서로 다른 문화가 알록달록 녹아 있는 듯한 사파. 이곳은 실제로 트레커들에게 통킹의 알프스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동남아의 트레킹 명소다. 하노이 도착 후 호텔이나 여행사 등을 통한 패키지로 사파 트레킹을 시작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지만 사파 현지에서 그룹 트레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좀 더 자유로운 여행을 원하면 관광센터에서 지도를 구입해 솔로 트레킹을 하는 것도 좋다. 사파 마을에서 시작해 계단식 논으로 이루어진 므엥호아 계곡을 따라 호몽족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린호, 라오짜이 마을을 거쳐 자이족 마을인 타반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지앙타차이까지 가는 루트는 대략 28km. 트레커들을 위한 트레일이 아닌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형성된 길인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날씨에 따라 당일 원주도 가능하지만 고산족의 삶도 체험할 겸 타반 마을에서 하룻밤 홈스테이 해볼 것을 추천한다. 여느 홈스테이와 같이 식사와 목욕이 가능하지만 계절에 따라 침낭이나 추위를 막아줄 외투 등이 필요하니 꼼꼼히 준비해 가자. 사파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은 고산족 전통 의상과 액세서리. 특히 사파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원주민이 직접 만든 자수품은 놓치지 말자.





트레커들의 로망

칭다오, 노산

칭다오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식민지 시절 독일인들이 시작한 칭다오 맥주를 찾는 양조 탐방객들, 그리고 산동의 눈부신 해안선을 노산에서 한눈에 담으려는 트레커들. 어쩌면 노산 정상에서 차갑게 식은 칭다오 맥주를 꺼내 금빛으로 물든 바다를 안주 삼아 마시는 것이야말로 트레커들의 로망이자 칭다오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노산이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트레커들의 발길을 끄는 건 트레킹에 더없이 좋은 해발 1000m 안팎의 높이와 산동 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능선이 만드는 최고의 트레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80km 넘는 트레일에 솟아 있는 병풍처럼 펼쳐진 30여 개의 봉우리는 마치 한국의 명산을 가져온 것만 같은 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도교의 유래지인 만큼 2000년 역사가 담긴 태청궁을 비롯해 군데군데 위치한 절과 목조건축물을 통해 중국의 도교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다행히 그런 노산의 비경과 역사를 감상하는 건 입구인 산문에서 케이블카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가능하다. 하지만 트레커라면 노산 최고봉인 거봉을 둘러싼 원형 트레일 종주에 도전해볼 만하다. 이문 삼거리에서 시작해 곤문, 태문 등의 관문을 지나 아찔한 구름다리를 건너 철계단길을 따라 다시 삼거리로 오는 트레킹 코스야말로 노산의 진면목을 느끼는 최고의 방법이다.

부산 트레킹의 진미 부산, 이기대 바닷길

“부산 어디까지 가보셨어요?”라는 광고 문구 같은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해운대, 태종대, 남포동 등의 관광지를 언급하기 마련이다. 이미 가볼 만큼 가본 부산이지만 그런 부산에도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에 뒤지지 않을 기막힌 트레킹 코스가 있다는 사실! 부산 갈맷길이라면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국민 트레일이다. 그 중에서도 동생말에서 시작해 오륙도 선착장까지 이어지는 이기대 바닷길은 남해 최고의 경관을 보여주는 부산의 명물이라 할 수 있다. 그 원주 시간이 채 두 시간도 안돼 트레킹이라기보다 산책에 가깝지만 광안리 해수욕장부터 시작하는 트레일을 따라 자성대까지, 중간지점인 이기대를 포함해 ‘갈맷길 2’ 코스의 전 구간을 거치면 무려 23km에 달하는 코스를 걸을 수 있다. 이기대 바닷길은 구름다리나 해녀막사, 자연동굴 등 볼 것이 많고 발 지압용으로 만들어진 자갈밭이나 해안선 언덕을 따라 아찔하게 만들어진 나무데크길도 있어 트레킹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부서지는 파도에 닿을 듯 바닷길을 지나 광안대교, 해운대, 동백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울마당에 도착해 부산 바다의 비경을 만끽해보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기대 트레킹은 치마바위, 농바위를 거치는 경사진 산길을 따라 오륙도 공원에서 마무리된다. 비록 장거리 트레킹 코스는 아니지만 부산 시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쉽게 연결되어 체력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살아 숨 쉬는 활화산 트레킹 수라바야, 브로모

일출 때 오묘한 분홍색으로 빛나는 태양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곳. 해발 2300km로 인도네시아에서 최고로 높은 산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방문객을 불러 모으는 수라바야 브로모 화산이다. 아직 가시지 않은 마그마 열기가 후끈하게 느껴지는 활화산 등선을 따라 걷다보면 초록 빛깔 만년 숲에서의 트레킹과는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브로모 화산을 뒤덮고 있는 '모래바다'의 끝자락에 위치한 세모로 라왕 마을에 숙소를 잡고 버스나 지프를 이용, 브로모 트레킹을 시작 할 수 있다. 개인 교통편이 있다면 자유 트레킹도 가능하지만 모래바다 면적이 만만치 않아 화산을 두르는 트레일을 따르는 것 외에 가볼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일출을 보기 위한 투어는 오전 3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새벽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 모래바다를 가로질러 화산에 도착하면 검은 화산재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 볼 수 있다. 2011년에도 폭발이 있었다고 하니 두껍게 쌓인 화산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폭발로 인해 형성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 검은 재에 묻혀 형상조차 알아볼 수 없는 계단은 마치 방문자에게 묵언의 경고를 하는 듯하다. 계단을 따라 정상까지 오르는 시간은 넉넉잡아 10분. 분화구에서 올라오는 하얀색 연기와 코를 찌르는 황산 냄새는 언젠가 또 한 번 하늘을 향해 요동칠 활화산의 모습을 암시한다. 보통 브로모 투어는 정상에서 세모로 라왕 마을로 되돌아가는 루트로 마무리되지만 좀 더 어드벤처를 즐기고 싶다면 화산 둘레를 도는 트레일을 걸어보자. 고요 속에 검은 재로 덮인 황량한 벌판을 걷는 것도 어쩌면 인도네시아 오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잊지 못할 트레킹이 될 것이다.



원령공주의 숲 가고시마, 야쿠시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 <원령공주>의 배경이 되었다는 야쿠시마 섬. 과연 그 섬을 가득 메우고 있는 진녹색 고목들과 아열대 특유의 거친 공기 속에 자라난 푸르스름한 이끼는 여행자에게 마치 태고의 생태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아름다운 경치에 비해 외국 관광객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만큼 일본을 대표하는 네이처 트레일로 내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1년 중 반은 비가 온다고 하나 하늘을 향해 뿜어내는 삼나무 잎사귀에 가려 트레킹하는 데 지장을 주진 않는다. 숲길 사이로 들리는 굵은 빗방울 소리도 트레커들의 발걸음에 흥을 돋우는 즐거움 중 하나다. 야쿠시마 트레킹은 크게 두 가지 루트로 나눌 수 있다. 미야노우라에서 수령 7200년 된 삼나무 '조몬스기'를 향해 시라타니 운수이코 숲을 거치는 트레일과 안보향에서 시작해 원령공주의 이름을 딴 '모노노케히메노모리숲', 그리고 3000년 된 고목 야요이스기를 거치는 아라카와 트레일을 밟는 것이다. 두 시작점 다 가고시마에서 페리로 갈 수 있어 어렵지 않게 트레킹을 시작할 수 있다. 섬 중앙에 있는 조몬스기를 향한 트레일이 가장 인기 있는 코스지만 완주하는 데 10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 흠. 부담된다면 버스를 이용해 시라타니 운수이코에서 시작하는 단거리 코스를 밟는 것을 추천한다. 베테랑 트레커라면 일본 100대 명산으로 꼽히는 미야노우라다케(1867m) 등반에도 도전해볼 만하다. 최소 이를 이상 걸리는 코스로, 트레일 곳곳에 있는 빈 산장이 있어 숙박은 문제없다.



코타바루, 이슬람 문화의 자유로움이 숨 쉬는 곳

말레이시아 켈란탄 주 문화관광유산부 장관

지난 몇 년 동안 켈란탄 주 정부의 노력하에 말레이시아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한 코타바루. 아직 다른 동남아 관광도시에 비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슬람 문화에 뿌리를 둔 독특한 문화와 역사는 점점 현대화하는 동남아 문화에 식상한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켈란탄 문화관광유산부 장관(YB DATO' H.J. MD. ANIZAM BIN AB. RAHMAN)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타바루 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코타바루에 대한 짧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켈란탄 주의 주도 코타바루는 말레이시아 동해안의 관문이자 말레이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슬람 문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지만, 자유분방한 도시죠. 다른 관광도시에 비해 복잡하지 않은 게 매력입니다. 도시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풍부한 먹을거리와 숙박시설들, 그리고 도시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친절함이 자랑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레이 문화의 속살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말레이시아다운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코타바루 방문 중 꼭 가봐야 할 관광지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장관님이 가장 즐거 찾는 관광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코타바루에 오시면 먼저 '컬처럴존(Cultural Zone)'을 방문해보세요. 유명한 무하마디 광장을 포함해 왕실 전통 박물관, 전쟁기념관, 수공예 마을, 술탄 이스마일 페트라 아치, 시티 카디자 중앙시장 등 주요 관광지들이 밀집해 있어 여행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핫스팟으로 꼽힙니다. 특히 시티 카디자 중앙시장은 거의 모든 상인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코타바루의 독특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글랑강 세니, 즉 문화센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행자가 직접 전통놀이에 참여할 수 있고 웨이왕퀼트(그림자연극), 실탕(말레이무술), 가싱(헤드스핀) 등의 켈란탄 주에서만 볼 수 있는 음악 공연과 퍼포먼스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지요.

여행자가 코타바루를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타바루를 가장 많이 찾는 국제 방문객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요?

전 세계 여행자가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이슬람 도시인 코타바루를 찾는 이유는 전통적인 삶과 문화, 그리고 가장 큰 자랑거리인 코타바루 전통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국 관광객 외 많은 아시아와 유럽 방문객들이 매년 코타바루를 방문합니다.



코타바루의 관광산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더 많은 관광객 유치 위해 도시를 개방한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코타바루가 세계적인 관광지 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말레이 문화의

전통과 유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지난 몇 년 동안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노력과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코타바루와 쿠알라룸푸르, 페낭, 조호르바루, 코타키나발루, 쿠칭을 연결하는 새로 업그레이드된 공항은 앞으로 코타바루의 관광산업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현대식 쇼핑몰과 아울렛, 전통시장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쇼핑 문화 또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가형 숙소부터 5성급 호텔까지 여행자에게 필요한 숙박시설이 도시 구석구석 마련되어 누구라도 부담 없이 코타바루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국제 연 축제, 켈란탄 국제 조류 노래자랑 등 문화 도시에 빠질 수 없는 페스티벌도 코타바루의 관광 브랜드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제 관광지로서 코타바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자랑거리라면 뽀니뽀니 해도 코타바루인들의 독특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이루고 있는 건 역시 코타바루의 역사와 전통, 문화, 그리고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여러 도시가 관광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코타바루의 관광산업을 위해 어떤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나요?

지난 2012년 코타바루를 세계에 좀 더 알리기 위해 TPO와 세계 뉴캐슬연합에 가입했습니다. 홍보 마케팅을 보다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이웃 나라에서도 전시와 페어를 여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독자와 앞으로 코타바루를 찾을 여행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와 역사의 도시 코타바루에 머무는 동안 최상의 숙박시설과 따뜻한 친절함을 도시 어디에서나 체험하실 수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켈란탄 주 정부는 코타바루의 풍요로운 문화와 역사를 보존함과 동시에 여행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6회 TPO 포럼 2014’를 비롯해 다수의 이벤트가 올해 코타바루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타바루의 미래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이슬람 문화권의 소도시였던 코타바루가 짧은 시간에 현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켈란탄 주 정부의 대대적인 관광 진흥 사업이 밑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적은 코타바루를 전통과 역사가 숨 쉬는 세계적인 이슬람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와 TPO를 위한 조언이나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자매도시나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한 TPO 도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팜투어나 B2B페어 등 관광산업을 위한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역시 중요합니다.



타이난, 차이니스 타이베이

'2014 타이완 국제 난초 전시회' 10주년



타이난 시의 대표 축제이자 세계 3대 난초 전시회로 손꼽히는 '2014 타이완 국제난초전시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번 행사는 '어메이징 10(Amazing 10)'을 주제로 오는 3월 8일부터 17일까지 타이난 시에서 열린다. 전시장은 대형 조경으로 꾸민 '난화관'과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난초를 전시하는 '징연관', 난초와 원예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풍화관', 희귀하고 이국적인 난초를 볼 수 있는 '국제대도', 호수 주변에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조경한 '난초공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타이난 시는 세계 꽃시장에서 다양한 난초 품종과 육종 능력으로 '난초왕국'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 2014' 선포

말레이시아 관광청이 지난 1월 4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 2014(Visit Malaysia Year 2014, 이하 VMY 2014)'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VMY 2014'가 공식 선포되어 눈길을 끌었다. 말레이시아 관광청은 이번 캠페인 테마를 '하나 되는 말레이시아, 진정한 아시아를 기념하자(Celebrating 1Malaysia Truly Asia)'로 정했다. 이는 말레이시아인 전체의 화합과 함께 여러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캠페인 표어로 '우리가 주인이다(We are the host)'와 마스코트로 코주부원숭이를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관광청은 올해 'VMY 2014'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며 올 한 해 28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한국·러시아 간 비자면제협정 발효

올해 한국과 러시아 간 무비자 시대가 열렸다. 지난 1월부터 한국과 러시아가 맺은 비자면제협정이 발효된 것. 양국 관광객은 비자 없이 한 번에 최대 60일, 6개월 이내 최대 90일까지 두 국가의 전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자 발급 비용과 소요 시간이 절약되어 여행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관광객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러시아 방송 매체인 '러시아의 소리'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러시아 연방 관광청이 2014년과 2015년을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국인 관광객 수, 사상 최대 기록

지난해 11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11월의 방일 외국인 수는 2012년 동월 대비 29.5% 증가한 84만 명이었다. 이는 과거 최대 기록이었던 2007년 68만 7000명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949만 9000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가 2012년 동월 대비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했고, 말레이시아는 연간은 물론 월별로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정부관광국은 이번 결과의 요인으로 엔저로 인한 일본 여행 비용 인하와 지속적인 VJ 사업의 방일 프로모션의 효과, 동남아시아 관광객의 입국심사 완화 정책 등을 꼽았다.



기타큐슈, 일본

스타플라이어, 무안~기타큐슈 직항편 운항

일본 저비용항공사 스타플라이어(Starflyer)가 지난 2월 한 달간 전남 무안국제공항과 일본 기타큐슈 공항 간 직항편을 6회 왕복 운항했다. 이번 직항편에는 144명 정원의 에어버스 A320 기종이 사용됐고, 비행시간은 약 1시간 10분으로 기존 인천공항이나 부산김해공항을 이용할 때와 비교해 왕복 소요 시간 및 비용이 한층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타플라이어는 일본 항공 회사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9월 무안~기타큐슈 노선 직항편을 4회 왕복 운항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노선을 비롯해 7개 노선을 개설했으며, 현재 총 21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가고시마, 일본

대한항공, 인천~가고시마 노선 매일 운항

대한항공이 동계 시즌을 맞아 가고시마 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직항 노선을 증편 운항했다. 해당 항공편은 기존 수·금·일 주 3회 운항에서 증편해 오는 3월 29일까지 매일 운항한다. 이는 원화 가치 상승과 더불어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일본 남쪽 지역으로 떠나는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연간 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가고시마(鹿児島)는 사쿠라지마(桜島)를 포함한 뛰어난 자연경관과 구·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규슈 지역 대표 관광도시다. 연평균 기온이 18.5℃ 전후로 온화해 국내의 다수의 프로 스포츠 구단의 동계 훈련 장소로도 인기 있으며, 겨울철 관광지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코타바루, 말레이시아

‘제6회 TPO 포럼’ 개최

‘제6회 TPO 포럼’이 오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말레이시아 코타바루 시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를 위해 주한명 TPO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코타바루를 방문, 켈란탄 주지사 YAB. USTAZ DATO’ HAJI AHMAD BIN YAKOB과 행정부장관 DATO’ HAJI ABDUL FATTAH BIN MAHMOOD, 문화관광유산부 장관 YB DATO’ HJ. MD. ANIZAM BIN AB. RAHMAN 및 실무자들과 만나 개최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했다. 행사 장소는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편리한 그랜드 리버 뷰 호텔로 확정됐다. 더불어 행사 기간 내 TPO 해외공동마케팅사업의 일환인 ‘TTT 2014 Malaysia - 회원공동홍보설명회’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쿠알라룸푸르 시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켈란탄 주지사는 “코타바루는 켈란탄 주의 수도로 말레이시아의 다른 도시와 비교되는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많은 TPO 회원 도시 관계자들이 이번 포럼에 참가해 코타바루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03 March 2014

Festival Calendar

중국, 광저우 | 3월 중(날짜 미정)

폴로 출생 축제 템플 페어

장소 미아오토우 마을, 황포 지구, 광저우

중국 최대의 민속 박람회인 '폴로 출생 축제 템플 페어'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축제다. 많은 사람이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보다 이 축제를 경험하는 것을 인생의 더 큰 바람으로 여길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종이로 만든 닭 모양의 '폴로'에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도 한다. 폴로를 지나면 미래에 큰 행운을 누린다는 전설이 있어 축제에 참여한 누구나 폴로를 반드시 구입한다.



일본, 후쿠오카 | 3월 23일

2014 후쿠오카 아시아 컬렉션

장소 후쿠오카 국제 센터

규슈 지역 최대의 패션 이벤트이자 일본 4대 컬렉션 중 하나인 '2014 후쿠오카 아시아 컬렉션 (FUKUOKA ASIA COLLECTION 2014)'이 3월 23일 후쿠오카 국제 센터에서 열린다. 'FACo'는 새로운 패션 장르를 선보일 뿐 아니라 유명 모델과 배우들이 직접 런웨이에 오르고, 가수들의 공연과 토크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패션 콘서트'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지난 2009년, 후쿠오카를 세계의 패션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그 규모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 2월 24일~3월 2일

마슬레니차

장소 러시아 전역

'마슬레니차'는 매년 사순절 바로 전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러시아식 봄맞이 축제다. 이 기간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버터를 사용한 빵이나 동그랗고 노란 러시아식 팬케이크 '블린'을 주로 먹기 때문에 '팬케이크 주 축제(Russian Pancake Week Festival)'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겨울을 상징하는 인형을 태우고,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등 축제를 신명나게 즐긴다. 광장 전역에서는 전통 기념품과 팬케이크를 판매하고, 공연이나 전통 놀이 등 체험 거리도 풍성하다.



중국, 상하이 | 3월 중(날짜 미정)

상하이 국제 패션 문화 축제

장소 상하이 신국제 엑스포 센터

상하이 시 정부 주최로 열리는 '상하이 국제 패션 문화 축제 (Shanghai International Fashion Culture Festival)'가 3월 상하이 신국제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의류·섬유 박람회, 패션 포럼과 함께 해외 유명 디자이너 초청 패션쇼, 디자인 콘테스트와 신진 디자이너 선발 대회, 모델 콘테스트 등이 열린다. 이 밖에도 국제적인 패션 트렌드와 중국의 패션 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패션 산업 전반에 걸쳐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국, 광주 | 3월 28일~4월 6일

2014 광주봄꽃박람회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올해 전국에서 가장 이른 꽃 축제가 광주에서 열린다. 해마다 실내 봄꽃박람회를 선보인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꽃과 생활 그리고 힐링'이라는 주제로 '2014 광주봄꽃박람회'를 마련한 것. 이번 축제는 지난 행사에 비해 실내정원과 꽃 식재 면적을 넓히고, 캐릭터와 체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가족 관람객들에게 더욱 유익한 행사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보는 전시에서 벗어나 화훼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화훼 강좌, 꽃 포장 등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한국, 인천 | 3월 30일

제14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장소 인천 문학월드컵경기장

인천의 최대 스포츠 행사인 '제14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가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이 대회는 국내 유일의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인증 하프국제대회로 참가 종목은 하프코스과 5km 코스, 10km 코스 3가지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지난 2월 28일까지 종목과 관계없이 총 2만 명만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다. 코스는 인천 문학월드컵경기장부터 송도국제도시까지. 종목별 남·여 1~5위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부상을 시상하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티셔츠와 스포츠 가방, 메달 등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04 April 2014

Festival Calendar



한국, 창원 | 4월 1일 ~ 4월 10일
제52회 진해군항제
장소 중원로터리 등 진해 일대

52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국 규모의 벚꽃 축제 '진해군항제'가 4월 1~10일 열흘간 진해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 1963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충무공의 숭고한 구국의 얼을 기리고 향토 문화 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축제다. 2013년 대한민국 지역 브랜드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 축제는 올해에도 문화예술행사와 세계군악페스티벌, 팔도풍물시장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전국 최고의 벚꽃축제가 될 예정이다.

중국, 항저우 | 4월 중(날짜 미정)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장소 화이트 홀스 레이크 애니메이션 플라자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만화 애니메이션 행사 '중국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China International Cartoon and Animation Festival)'이 항저우에서 열린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된 이 행사는 세계 애니메이션의 경향과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로, 중국의 유명 아티스트 '한 메일링(Han Meilin)'이 디자인한 원숭이가 행사의 마스코트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몽키 킹 어워드(Monkey King Award)'는 2008년 처음 도입된 이래 정부와 기업, 학계가 지원하는 중국 애니메이션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테스트로 자리 잡았다.



한국, 익산 | 4월 16일 ~ 4월 27일
익산보석대축제
장소 익산 귀금속보석판매센터, 보석박물관

화려하고 진귀한 보석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2014 주얼펠리스 보석대축제'가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북 익산 귀금속보석판매센터와 보석박물관에서 열린다. 보석박물관에는 세계의 진귀한 보석과 광물 11만 8000여 점이 전시되어, 행사 동안 100만여 점의 다이아몬드와 루비, 에메랄드, 진주, 사파이어로 만든 다양한 액세서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익산시는 1970년대부터 보석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해 해마다 세계 40여 개 국가에 6000만 달러어치 이상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보석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영주 | 4월 6일
제12회 영주소백산 마라톤대회
장소 영주시민운동장

국내 10대 메이저급 마라톤대회로 꼽히는 '영주소백산 마라톤대회'가 4월 6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다. 참가 종목은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는 5km와 10km, 전문 마라토너를 위한 풀·하프코스 등 4개 부문으로, 올해도 마라토너 1만여 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12주년을 맞아 상금과 트로피, 기념품을 종전보다 확대하고 돼지고기와 잔치국수, 홍삼진액, 사과 등 푸짐한 먹을거리도 준비하는 등 행사 전반에 심혈을 기울였다.



말레이시아, 페낭 | 4월 12일~4월 13일
페낭 세계 음악 축제 2014
장소 페낭 식물원, 조지 타운

전통과 현대음악을 아우른 페낭 세계 음악 축제(Penang World Music Festival 2014)가 4월 세계 음악 애호가들을 축제의 장으로 초대한다. 이틀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첫째 날 개막식이 치러지기 전 오후 2시부터 다양한 예술과 음악 워크숍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 아름다운 채석장 공원이 축제 배경으로 활용되고, 축제장을 메운 부스에서는 전통 공예품과 음악 CD, 먹을거리, 기념품을 판매하며 축제를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한국, 부산 | 4월 18일~4월 21일
아트쇼 부산 2014
장소 부산 벡스코(BEXCO)

국내의 침체된 미술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아트마켓 '아트쇼 부산 2014'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지난해 관람객 3만 3000여 명, 판매액 51억 원의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신규 컬렉터와 미술애호가,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 역시 차별화한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잠재력 있는 작가 발굴과 지원, 슈퍼 컬렉터와 신진 컬렉터 유입에 총력을 기울여 국제적인 예술 행사로 거듭날 계획이다.

05 May 2014

Festival Calendar



한국, 대전 | 5월 15일~5월 18일
제6회 대전국제박람회
장소 대전무역전시관

대전시 지역 경제 살리기와 건설 경기 활성화 시책의 일환인 '제4회 대전건축박람회'가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현재 대전 생활권에 건설 중인 세종시와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중부권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부권 관련 기관과 업체에 새로운 건축 인테리어 정보와 마케팅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 기타큐슈 | 5월 24일~5월 25일
모지코 항구 축제
장소 모지코 항

일본 3대 항구 축제 중 하나인 '모지코 항구 축제(門司みなと祭)'가 개항한 지 100년이 넘는 모지코 항에서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린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모지코 구내를 춤추며 걷는 대형 퍼레이드. 연주단과 장식차를 선두로 해 미스 모지코 항과 각 단체의 사거리 등 50대 이상의 차량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5시간 정도 퍼레이드를 펼친다. 이와 함께 지역 단체와 기업이 참가해 일제히 춤을 추며, 거리를 형형색색으로 물들이는 진풍경도 펼쳐진다.



한국, 부산 | 5월 30일~6월 8일
부산 국제 모터쇼
장소 부산 벙스코

'부산국제모터쇼'가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부산 벙스코(BEXCO)에서 열린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행사엔 국내 7개, 수입차 12개 총 17개 브랜드가 참여, 가장 많은 참가 기업 수를 자랑한 2012년보다 2개가 많은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행사장을 벙스코 본관뿐 아니라 신관까지 확대해 수입차 전시 면적을 2012년 5300m²에서 9500m²로 크게 확대할 계획. 그 어느 해보다 관람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 울산 | 5월 9일~5월 11일
제10회 울산쇠부리축제
장소 울산시 북구청 일원, 북구문화예술회관

2005년 시작된 '울산쇠부리축제'가 올해 10회를 맞았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산업의 두르락(樂), 쇠부리 울림으로'로, 개막식에서 '쇠, 불, 바람, 물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한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 또 고대 야철로 재현 행사와 쇠를 소재로 한 아트컬래보레이션, '철(鐵)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 쇠부리 미니카 레이싱 페스티벌 등도 펼쳐진다. '쇠부리'는 철광석이나 토철에서 고도의 열을 가해 덩이 쇠를 만들어내는 재래식 철 생산 과정을 일컫는 경상도 방언으로 오늘날 철강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한 울산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다.

한국, 대구 | 5월 23일~5월 25일
2014 대구뷰티엑스포
장소 대구 엑스코(EXCO)

지난해 처음 개최돼 나흘간 1만 3000명이 방문, 열광적인 인기를 얻은 '대구뷰티엑스포'가 두 번째 행사를 연다. 총 120개사 400개 부스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화장품과 에스테틱, 헤어, 네일, 의료기관 등 다양한 뷰티 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부대행사는 뷰티 쇼와 세미나, 콘테스트는 물론 메이크업과 헤어 전후 달라진 모습을 체험하는 뷰티체인지관 등이 마련되어 미용에 관심 있는 관람객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강릉 | 5월 31일~6월 7일
2014 강릉단오제
장소 강릉시 남대천 단오장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강릉단오제'가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강릉시 일대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신주빚기와 국사성황제, 영신제와 영신행차, 본행사 등 10개 분야에서 70여 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강릉단오제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온 축제이자 독특한 제의 문화 중 하나로 손꼽힌다. 지난해 한국축제 50선 선정위원회가 실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축제 50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